

#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1. 가을호 (제6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 중앙대학교 개교 83주년 제 31회 모교의 날

### 약학대학동문회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CONTENTS

CONTENTS

시론 / 약국의 변화와 보조인력 · 3

공직약사프로필 · 4

동문회소식 / 회장단회의 · 6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 6

시도지부장회의 · 6

2001년도 약학대학 동문회 이사회 · 7

북미주 중앙대 총동창회/LA 및 뉴욕지역 동문 방문 · 8

제31회 모교의날 기념 체육대회 · 10

Home-Coming Day · 14

만평 / 체력의 한계 · 15

동기별소식/11회 / 다양한 소그룹 활동이 친목도모의 밑거름 · 16

지부별소식/안양지부 / 한번 발을 디디면 영원한 안양지부맨 · 17

여동문회소식 /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행운 · 18

동기회동정/4회 /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 20

특별기고 / 동문회 활성화와 친목을 다진 세월 · 21

문학산책/수필 / 일년만의 외출 · 22

모교 및 총동창회소식 · 24

회원동정 · 26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 28

편집후기 · 30



인 쇄 : 2001년 10월 30일

발 행 : 2001년 10월 31일

발행인 : 유 영 후

편집인 : 황 공 용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 화 : 565-1700

팩 소 :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전 화 : (02)2263-1901(대)

팩 소 : (02) 2263-1905

E-mail: YC1905@chollian.net

# 약국의 변화와 보조인력



이 호 섭  
(12회, 부회장)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약국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약국의 관리형태가 모두 틀리듯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는 약국은 찾기 힘들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는 나날이 급변해 가고 있고 따라서 약국 경영도 다양화되어야겠다.

약사는 약국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사고도 다변화 시켜야 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의 정착단계로서 약사의 업무가 처방검토에서 조제업무, 복약지도, 청구업무,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약국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동네약국은 몹시 어려운 상태다.

일약국 복수약사가 문제해결은 될 수 있으나 구인난과 고임금으로 대다수 약국은 힘든 상태다. 현재의 약사제도로는 약국의 다변화에 대처가 힘들고 약국은 약사 감시대상에서 매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곤욕을 치르는 불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네약국은 경영난을 못이겨 폐문사태가 늘어나고 결국 불법 수퍼만이 호황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정책당국의 안일한 사고와 약사회의 무방비로 수퍼의 의약품 취급쪽으로 정책이 기울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보조인력이 거론될 때마다 약사의 고유업무 침해와 면대약국 양성화에 명분을 줄 것이라는 이유

로 좌초하고 말았다. 현재는 새로운 의약분업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다변화된 약국의 출현도 있어야겠고 거기에 맞는 약사업무도 필요하게 되었다.

약사업무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그만큼 책임감도 증가되는 상태다. 또한 약국의 복약지도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만큼 앞으로 복약지도가 약사업무의 최우선 과제가 임이 명백해졌고, 복약지도 방법에 따라 약국 경영상태를 좌우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다변화된 처방에 따라 정확한 지식정보가 요구되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예전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지금부터라도 약사의 고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다. 사회는 바람직한 약사상을 정립할 수 있고 권위도 찾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약사보조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환자한테는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약사의 고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다. 약사회는 바람직한 약사상을 정립할 수 있고 권위도 찾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약사보조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처방전 입력이나 청구업무, 단순한 일반약 판매는 일정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로 보조할 수 있게 그리고 실무교육을 통해서 제도정책을 유도해야 된다.

약사직능을 수행하는 모든 약사들은 이번 기회에 보조원제가 성안되어 약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Profile

Profile

식품의약품안전청



홍 순 욱 (23회)



김 명 정 (27회)



김 인 범 (29회)

보건소



고 승 하 (11회)



윤 대 장 (11회)



이 순 우 (12회)

국립독성연구소



김 동 섭 (24회)



김 혜 수 (30회)



최 기 환 (30회)



손 수 정 (32회)



강 석 연 (33회)



양 성 준 (39회)

PROFILE



박 종 필 (33회)



김 명 호 (36회)



이 종 각 (13회)



정 진 호 (21회)



최 돈 응 (30회)



서 수 경 (32회)

### 식품의약품안전청

성명	기수	근무지
안 상 회	13회	마약관리과
박 전 희	21회	의약품관리과
윤 영 식	22회	경인지방청
홍 순 욱	23회	의약품관리과
김 광 호	25회	의약품관리과
김 관 성	26회	의약품관리과
정 명 훈	27회	대구지방청
김 명 정	27회	의약품안전과
김 인 범	29회	의약품관리과
김 성 진	33회	서울지방청
박 종 필	33회	서울지방청
이 준 한	34회	마약관리과
오 창 현	35회	의약품관리과
김 명 호	36회	의약품관리과
유 대 규	48회	의약품관리과

### 보 건 소

성명	기수	근무지
고 승 하	11회	동작구보건소
윤 대 장	11회	동대문구보건소
이 순 우	12회	동안구보건소
이 종 각	13회	관악구보건소
정 진 호	21회	종로구보건소

### 국립독성연구소

성명	기수	근무지
최 광 식	16회	특수독성부
김 동 섭	24회	일반약리과
김 혜 수	30회	약품화학과
최 기 환	30회	일반약리과
최 돈 응	30회	생약규격과
서 수 경	32회	안전성평가과
손 수 정	32회	약효약리과
강 석 연	33회	생화학약리과
양 성 준	39회	의약외품과



## 회장단회의



〈일 시〉 8월 18일 동문회관 6시 30분  
 〈안 건〉

- 1) LA 북미지역 총동창회 및 해외한인약사회 세미나(뉴욕) 참여보고
  - LA지역 동문 30여명 참석(8월 4일), 뉴욕지역 동문 20여명 참석(8월 11일)하여 일반회비 및 이사회비 1,610불(약 2,093,000원) 납부
- 2) 홈커밍데이는 10월 14일(둘째주 일요일) 체육대회 개최 예정
  - 9월초에 각 지부장회의 소집 및 체육대회 설명
  - 체육대회가 끝난 후 교수식당에서 저녁만찬
- 3) 초도이사회 개최의 건 : 9월 22일(토요일) 6시
- 4) 기타토의 사항 :
  - 장학기금 관리위원회는 총 24명으로 최종 결정
  - 유영후, 김순일, 김기홍, 장래, 지선훈, 오세형, 최종목, 천흥기, 김채운, 이해석, 임완호, 임성기, 문장운, 이기안, 조의환, 이규진, 유정사, 박호일, 황공용, 강육희, 서국진, 김명웅, 정도연, 이도익

##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일 시〉 9월 1일 동문회관  
 〈안 건〉

- 1)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에 준하는 공인단체로 승인받아 금년부터 세금혜택을 받게 됨.
- 2) 장학기금 현황
  - 장학기금 현황은 현 입기 시작인 2000년 5월에 3억 6천만원을 인수했고, 기금 2천만원을 추가한 3억 8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통장은 학교측에, 도장은 동문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3) 장학금 수혜자 명단
  - 현 입기에 2000-2학기, 2001-1학기 장학금을 지급했고, 2001년 9월 5일 2001-2학기 장학금 수여식 예정(장학금 수여식 : 파이퍼홀 교수세미나실).
- 4) 만기 장학기금
  - 장학기금 3억 2천만원이 9월 3일자로 만기되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재적립하기로 함.

## 시도지부장회의



〈일 시〉 9월 15일 동문회관 6시  
 〈안 건〉

- 1) 개회식 10시, 폐회식 오후 5시로 결정
  - 홈커밍데이는 오후 6시 교수식당에서 개최
  - 개회식 후에 조별참가 인원수대로 점심식권, 행운권, 기념품 수령
- 2) 골프는 10월 8일(장소 : 수원 88CC 서코스 인, 아웃)
- 3) 선수명단 제출(선수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수)

# 2001년도 약학대학 동문회 이사회

〈일 시〉 2001년도 9월 22일(토) 6시

〈장 소〉 센트럴씨티 5층(메이플룸)

〈안 건〉

- 1) 경과보고
- 2) 장학기금 관리위원 추천건
- 3) 홈커밍데이 개최의 건
  - 10월 8일 낮 12시 골프대회
  - 10월 14일 오전 10시 체육대회
  - 오후 6시 홈커밍데이
- 4) 2001년도 예산안심의 건



- 5) 기타토의 : 국회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명섭 (5회) 동문이 민정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축하 화환을 전달받았다(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김의원 대신 유정사 동문이 강옥희 여동문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증정받았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사회

## 중앙대학교 약학대

-골프 : 9월 25일까지

-축구, 테니스, 바둑 : 10월 5일까지

- 4) 단독 지부 출전팀(4개 종목) 외에는 인근지부와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선정하여 추후 통보하기로 함.
- 5) 참가상은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여한 회원수로 결정



# 북미주 중앙대 총동창회 / LA 및 뉴욕지역 동문 방문

일시 : 2001. 8. 3~8. 13



## 제5회 북미주 중앙대학교 동창회 연합회 총회

- 일 시 : 2001년 8월 4일~5일
- 장 소 : 미국 로스엔젤레스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 주 최 : 북미주 중앙대학교 동창회 연합회
- 주 관 : 중앙대학교 남가주 동창회(회장: 박노익, 약학 7회)
- 참가자
  - 캐나다 : 이종문(1회), 성수자(7회), 이기덕(8회)
  - 뉴욕 : 이기황(7회), 이기덕(8회), 최해룡(8회)
  - 필라델피아 : 이준종(7회)
  - 샌프란시스코 : 최종범(7회)
  - 로스엔젤레스 : 강병인(1회), 김희영(1회), 송문영(1회), 최윤종(4회), 박보욱(4회), 우병하(6회), 이기정(6회), 이복순(7회), 최운선(7회), 박노익(7회), 박준영(7회), 임옥희(7회)
- 200여 명 참석 대성황, 약대 40여명 참석으로 단합과시
- 2002년 차기 대회 캐나다 몬트리얼



## 남가주 한인약사회 초청 모임

- 일 시 : 2001년 8월 3일
- 장 소 : LA 소재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일식당 사가에
- 참가자
  - 유창호 회장(서울대), 정만영 전 회장(서울대), 김승렬 이사장(18회), 이종문(1회), 송문영(1회), 송정용(3회), 유영이(7회), 이준종(7회), 박노익(7회), 이기황(7회), 이복순(7회), 성수자(7회), 최운선(7회), 유윤자(7회), 이기덕(8회)
- LA 지역 한인약사 125개 약국 500여 명 활동
- 남가주, 뉴욕,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한인약사회 활동 활발
- 남가주 연 1회 전체모임, 월 1회 임원모임



**<참가자>** 유영후 회장(7회), 이도익 학장(23회), 김명섭 의원(5회),  
유정사 부회장(10회), 김창종 교수(11회), 강옥희 부회장(12회),  
정찬현 안양지부장(20회), 박희용 편집위원(23회),



**남가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초청 모임**

- 일 시 : 2001년 8월 5일
- 장 소 : LA 소재 강남회관
- 참가자  
김승렬 회장(18회), 송문영 초대회장(1회),  
최수웅(1회), 정영만(1회), 이종문(1회), 송정용(3회),  
박보욱(4회), 최윤종(4회), 임옥희(7회), 박노익(7회),  
이정자(7회), 이준종(7회), 최운선(7회), 이복순(7회),  
성수자(7회), 유윤자(7회), 윤영미(7회), 최종범(7회),  
김옥남(7회), 이기황(7회), 오정웅(8회), 신부남(11회),  
우종수(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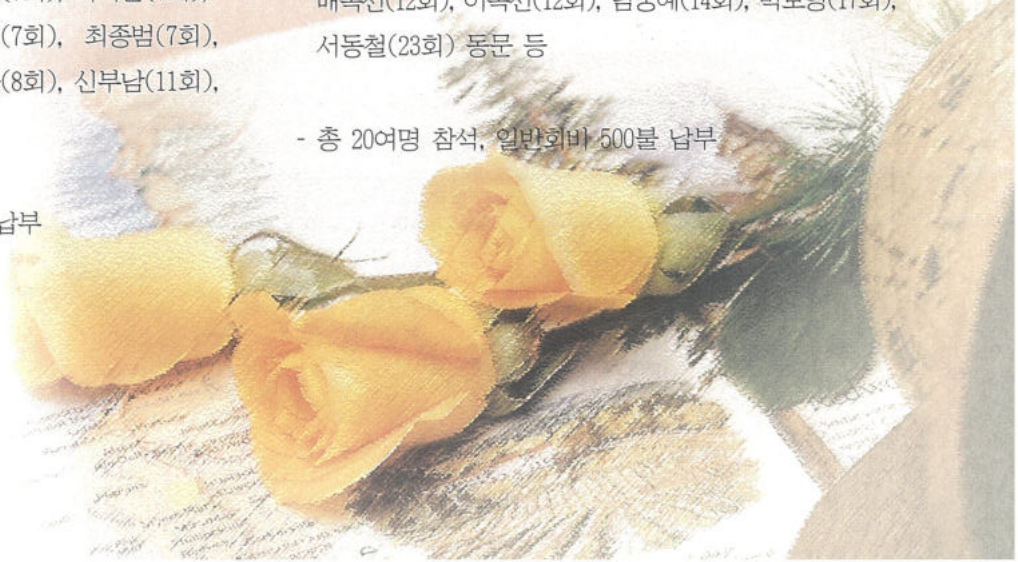
- 총 30여명 참석, 일반회비 600불 납부



**뉴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초청모임**

- 일 시 : 2001년 8월 11일
- 장 소 : NY 소재 한식당 엠파이어
- 참가자  
이영순(4회), 김종태(5회), 김종락(7회), 이준종(7회),  
이기황(7회), 장현재(7회), 최해룡(8회), 이기덕(8회),  
서황석(9회), 박선호(10회), 김광수(11회), 서재범(11회),  
배복선(12회), 이복선(12회), 남궁예(14회), 박보영(17회),  
서동철(23회) 동문 등

- 총 20여명 참석, 일반회비 500불 납부





# 제31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

-종합 우승 안산, 준우승 안양, 3위 수원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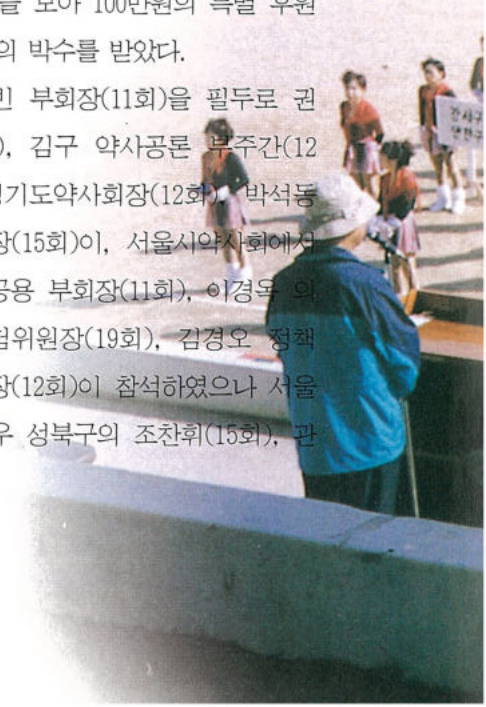
금상첨화란 이런데 쓰는 말이겠다. 6년이라는 공백을 딛고 다시 동문들의 정겨운 얼굴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설레임에 청명한 가을날씨가 지가세하여 말 그대로 기쁨이 배가 되는 즐거움을 느낀 하루였다.

10월 14일 모교 대운동장 및 부속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체육대회에는 1회 원로 선배로부터 현재 모교에 재학중인 1학년 막내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로부터 모인 250여 동문들이 같이 소리치고 뛰어다니며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깜짝 행사로 선보인 여동문들의 스포츠댄싱은 참가자들의 초반 열기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총 16개팀이 참가하여 축구, 테니스, 골프, 바둑의 4개 종목에서 열전을 치뤘으며 영예의 우승은 안산지부(50만

원), 준우승은 안양지부(30만원), 3위는 수원지부(20만원)가 차지했으며, 강서지부가 다참가상(40만원), 도봉지부가 아차상(30만원), 성북지부가 애석상(20만원), 그리고 깜짝쇼의 여자동문회가 인기상을 차지했다.

아침 일찍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한 김기홍 고문(1회)을 비롯하여 장례(1회), 오세형(3회) 및 임완호(6회) 고문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특히 평소 동문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던 최종목 고문(3회)은 자녀 결혼으로 부득이 참석은 못했지만 평소의 후배사랑 마음을 모아 100만원의 특별 후원금을 쾌척하여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한약사회의 문재민 부회장(11회)을 필두로 권혁구 윤리위원장(9회), 김구 약사공론 부주간(12회), 최병호 경기도약사회장(12회), 박석동 홍보위원장(15회)이,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황공용 부회장(11회), 이경옥 의료보험위원장(19회), 김경오 정책위원장(12회)이 참석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성북구의 조찬휘(15회), 관





악구의 박  
석동(15회),  
서초구의 김기명  
(18회) 분회장 등 3명만  
이 참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여동문화원들이 벌인 "스포츠댄싱"이  
체육대회의 상큼한 향취를 더했다.**

유니폼까지 마련한 여동문화원들  
뒷줄 좌로부터 이경옥(19), 임옥순(12회), 강옥희(12),  
엄계숙(13회), 김미담(19회), 강희운(22회), 오영지(13회),  
김희식(28회)

서초구약사회장 김기명(18회)-박미란(22  
회) 동문 부부, 안산시약사회장 김승재(24  
회)-김희식(28회) 동문 부부는 주변  
의 시샘어린 눈총을 받으면서도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은 표  
정이었으며, 그의 가족들, 특  
히 자녀들을 동반하고 참가  
하여 진정한 동문 모임으로서  
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 골프

1위



2위



3위



사전행사로 10월 8일 수원 88컨츄리 클럽에서 개최되었던 골프대회는 각 팀 4명씩 총 14개 팀이 출전하여 평소 같고 뒹았던 기량을 마음껏 과시하며 필드를 누비며 선후배가 흥금을 털어놓고 즐긴 하루였다.

지난 여름 회장단의 미국 방문시 환대를 아끼지 않았던 필라델피아의 이준종 동문(7회)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날아와 끈끈한 정을 확인했으며, 행사 마지막에 이날 참석자중 가장 선임인 김용욱(3회) 건일약품 회장이 막내인 홍순필(34회) 동문에게 특별상을 수상하여 더욱 화기애애한 자리를 만들었다.

▶ 1위 : 안양지부

- 정찬현(20회)
- 이신규(20회)
- 최석중(20회)
- 이국재(29회)

▶ 2위 : 안산지부

- 이범도(24회)
- 김승재(24회)
- 오홍설(27회)
- 홍순필(34회)

▶ 3위 : 수원지부

- 강응모(18회)
- 김현대(20회)
- 강만석(25회)
- 이원영(20회)

〈골프 개인상〉

- 메달리스트 : 이신규(20회) 안양지부
- 우승 : 이국재(29회) 안양지부
- 준우승 : 이영민(10회) 성남지부
- 3등 : 조희제(5회) 중구지부

- 4등 : 조의환(8회) 마포지부
- 5등 : 최석중(20회) 안양지부
- 니어 : 김경오(19회) 동대문지부
- 롱 : 이원영(20회) 수원시지부



# 테니스

1위



2위



3위



약사들의 전통적인 선호종목 중 하나인 테니스 역시 12개 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느라 땀을 흘렸다. 평소 호흡을 맞춘 팀은 물론 테니스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급조된 팀에 이르기까지

최근 약사들이 몰두하는 골프에 대한 애착을 멀리 떨쳐 버리며 땀흘리는 모습들이 정겨웠다. 부산지부가 출중한 기량을 과시하며 공동우승의 영예를 안았지만, 그 보다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던 후배들과의 친선게임이 못내 즐거운 듯 지치지 않는 정력을 과시했으며, 이날 잘나가던 안산지부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분주하게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오가는 진풍경을 연출해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 공동우승 : 부산지부

- 권기동(7회)
- 김정길(11회)

▶ 공동우승 : 안산지부

- 김승재(24회)
- 최민규(26회)

▶ 3위 : 종로·중구지부

- 전상훈(17회)
- 조근태(23회)

- 행운상 : 정훈교(5회) 중구지부

- 막내상 : 홍순필(34회) 안산지부

# 축구

1위



2위



3위



선수 구성의 애로로 상대적으로 참가 팀 수는 많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행사 성격상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가족들까지 동원한 응원전이 열을 뿜었다. 워낙 강팀으로 알려져 있는 강서지부는 부전승에 기권승을 더하여 하루 종일 네 번의 경기를 가지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안산지부를 끝내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괴력을 과시한 안산지부 역시 우승 못지 않은 찬사를 받았다.

▶ 1위 : 강서지부

- 박효식(19회)
- 유영내(20회)
- 오상동(20회)
- 최두주(25회)
- 조형진(28회)
- 정의채(30회)
- 김성국(31회)
- 이진우(31회)
- 문태섭(34회)
- 임성호(36회)
- 송형록(37회)

- 이범도(24회)

- 김승재(24회)
- 서정래(25회)
- 최민규(26회)
- 오홍설(27회)
- 오순용(27회)
- 한봉길(27회)
- 김덕진(27회)
- 강철순(28회)
- 정현삼(32회)
- 정재영(39회)
- 길봉진(39회)
- 최영진(32회)
- 방근철(39회)
- 허강서(32회)
- 전형수(34회)

▶ 3위 : 수원지부

- 박수서(6회)
- 박수배(7회)
- 박동규(13회)
- 임구래(20회)
- 이신규(20회)
- 정찬현(20회)
- 현기원(27회)
- 염승호(27회)
- 이철(29회)
- 안성진(29회)
- 이국재(29회)
- 신일균(30회)
- 김진홍(31회)
- 추정용(32회)
- 서장혁(40회)

▶ 2위 : 안산지부

- 최영덕(15회)
- 박찬중(23회)

# 바둑



대회장 본부석에 마련된 특별대국장에서 개최된 바둑 대회는 한 팀이 5명으로 5팀이 참여해 총호선으로 진행되어 반상의 묘미를 만끽하며 자웅을 겨뤘으나, 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가장 신사적인(?) 가위바위보를 통해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었다. 유영후 회장의 기념대국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평소 애기가로 소문난 허인회, 임철부 교수께서 양보할 수 없는 대국을 펼쳐 주변 동문들의 흐뭇한 시선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 ▶ 1위 : 수원지부
- ▶ 2위 : 동대문지부
- ▶ 3위 : 인천지부



▲ 교수님들도 한판  
(허인회 교수와 임철부 교수도 반상의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





# Home-Coming Day

저녁 6시부터 교수식당에서 열린 Home-Coming Day에까지 그 열기가 이어져 130여 동문들이 시간의 제약을 아쉬워하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모교 박명수 총장이 직접 참석해서 성공적인 행사에 대한 축하는 물론 최근 약학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든 노력을 치하하며 향후 약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덕룡, 김종갑, 손동헌

(1회), 이광표(1회) 명예교수께서 우정 참석 하셨으며, 이도익(23회) 학장, 김창종(11회) 의약식품대학원장, 이민원(25회) 약학전공 주임교수, 김하형(31회) 제약학전공 주임교수 등 보직교수는 물론 김기호(4회), 허인회(4회), 임철부(6), 염정록, 손의동(22회), 최영욱(24회), 심상수(26회), 황완균 교수(26회)가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또한 평소 동문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5회), 유유산업의 강승안 부회장(7회), 삼진제약의 조의환 부회장(8회), 환인제약의 박호일 부회장(10회)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담소의 장을 마련했다.

기념품으로 정제계수기, 기념수건 및 영어회화책자가 마련되었는데, 이중 정제계수기는 작년의 정제분쇄기에 이어 약국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많았





으며,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행운권 추첨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선배들 위주로 당첨되어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고, 특등상에 오세형(3회) 고문, 대상에 임철부(5회) 교수, 김희식(28회) 동문이 당첨되어 각각 20인치 및 14인치 칼라 TV를 경품으로 받았고, 몇몇 후배들은 경품을 지방 동문이나 교수들께 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여 모임의 의의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교가제창을 끝으로 내년에 더욱 준비되고 확대된 모습으로 다시 모임터를 다짐하며 각자 생활전선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발길을 돌렸다.

만평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올라라 ...

의약분업

체력의 한계

처방의약품목록





# 다양한 소그룹 활동이 친목도모의 밑거름

정 덕 호  
(11회 동기회장)

1963년 세상이 내것같은 나이로 흑석동 Campus에서 마냥 즐거워하던 모습들이 졸업 30주년을 벌써 훌쩍 지나고 21세기를 맞았다. 졸업 20주년을 맞이할 때만 해도 기백이 넘쳐 보이던 동기들이 이제는 머리카락이 거의 희고 벌써 손주를 보는 동문기생들이 많은걸 보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 우리 11회 동기는 전체수는 불과 110여명밖에 안되지만 석심회(회장 강일성), 송림회(회장 김기송), 청우회(회장 이의공), 중호회(회장 최옥출), 비취회(회장

김명우), 장미회(회장 김미자), 63골프회(회장 박승보) 등 회원 10명 미만

의 소그룹들이 활발히 모이는 관계로 동기가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동기는 전국에서 조용하게 藥師의 천직을 지니고 있는 동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특이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동기들도 많다. 이를 소개하면 모교 학장과 대한약학회장을 역임하고 아직 모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종 동기, 약사회에서 봉사한 동기로는 최옥출(충북약사회장), 허정범(영등포약사회장), 김정길(부산 중구 약사회장), 황공용(서초구 약사회장) 동기가 있고, 공직으로는 고승하(동작보건소 의약과장), 윤대장(동대문보건소 의약과장) 동기가 현직에 있으며 목사로 케냐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주진국 동기가 있다. 또 특이한 활동을 하는 동기도 있다. 김미자 동기가 서예로 국선에 입선

했는가 하면 고구려 역사 연구가로 알려진 오종철 동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약사

바둑계를 이끌고 있는 아마 5단의 황공용 동기, 건풍제약을 운영하다 현재는 개국하고 있는 황문상 동기 등이 있다. 그밖에 전국 각지역에서 존경받는 약사선배로 후배들에게 동기들도 많이있어 자랑스러운 11회 동기가 빛나고 있다.

현재 11회 동기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 정덕호(충남 보령 제일약국)
- 총 무 : 박승보(천안시 중앙약국)
- 부회장 : 민대식(서울 강서구 김포약국)
- 부회장 : 남북석(서울 강남구 천일약국)
- 부회장 : 박상희(경기 성남시 유성약국)
- 부회장 : 이천규(경기 안양 새동산약국)
- 감사 : 함종한(서울 광진구 삼강약국)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1회 동기가 졸업 30**  
1997년 10월 18일 서울프라자호텔 덕수





# 한 번 발을 디디면 영원한 안양지부 맨



정 찬 현  
(20회, 안양지부장)



가을 낙엽이 너무도 황홀하다. 찬 겨울 이겨내고 따뜻한 봄기운 받아 작열하는 여름 햇볕을 쬐이고 낙엽은 아주 보기 좋게 단풍이 들었다. 안양지부도 이와 같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속에서 그 정체성을 깨고 찬란한 동지를 틀었다. 안양지부는 1회 선배이신 구웅서 선배님을 필두로 시대의 격변과 함께 애환을 겪어 오다가 이제 23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한 지부로 탄생하였다.

초대 이성섭 회장과 작고하신 총무 성영준 선배님이 30여 명의 회원을 모태로 하여 안양지부를 만들었고, 뒤를 이어 정연흥, 박수배, 임천석, 박동규, 박수서, 최해광, 안병호, 이신규, 현 회장인 정찬현에 이르렀다. 이제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거대한 지부가 되었고, 이 중 90%가 개국회원이며 이들이 안양시 약사회의 중심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안양지부는 매우 특징적인 행사를 많이 갖는 지부다. 그중에서도 2

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격년에 한번 전국의 명산을 등반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3년전 금강산 등반 길을 두고두고 회상하곤 한다.

올해는 중국 계림으로 여행을 떠난다. 항상 동문끼리 떠나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그 어떤 것보다도 포근하고 정감이 넘쳐난다.

안양지부는 선후배의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 선배의 후배사랑은 어머니의 내리사랑과 같이 늘 편안함과 감싸안음이 있다. 선배님들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오셔서 반갑게 손을 내미실 때마다 후배로써 매우 죄송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다.

안양지부는 항상 안양시 약사회장과 임원을 맡아 회무에도 매우 적극적이고 중심체적인 입장이다. 시약회장 1대 구웅서, 2대 가재춘, 3대 이성섭, 5대 권승균, 9대 박동규, 11대 최해광, 13대(현) 이신규에 이르기

까지 7명의 회장을 배출하였다.

안양지부는 회원들이 이탈이 매우 드문 지부다. 때문에 오랜동안 개국하신 선배와 후배들의 정감이 긴 연륜으로 쌓여져 끈끈한 유대관계가 폭넓게 이어져오고 있다. 한번 이곳에 발을 디디면 영원한 안양지부 맨이 되는 것이다.

한강에서 이어져 내려와 안양천을 이룬 안양지부, 그 긴 끈만큼이니 오랜 연륜이 훗날 후배들까지 두고두고 내리사랑이되어 이어지리라. 10여 년 전 창립된 약우회(골프동우회)는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뽄뽄뽄 쳐 총동문회 골프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안양지부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지부로써 존재할 것이다.







사님, 선후배 동문들이 우정 마중을 나와 주셨고, 곧바로 우리 중대 동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 금강산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뉴욕지역 중대 동문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8월 8일 40°C를 오라가락하는 무더위 속에 시내관광과 골프 등으로 일정을 보내고 난 후 한인약사회 이종대 회장을 위시하여 한국에서 도착한 민관식 대약 명예회장, 문희 한국여약사회장, 홍명자, 성수자, 남수자, 곽순애 약사들과 즐겁게 해후를 했다.

8월 9일 저녁의 미주지역 한인약사회 심포지엄과 opening ceremony에 이어, 다음 날 8월 10일 조동협 박사의 노령화 국가 대열에 들어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 준「블로장생과 노인병」이란 특강을 필두로, 김권호 박사의「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 추이」, 우리 중대약대 동문이며 뉴저지주립대 약대교수인 서동철 박사의「사이버 약국의 실제와 영향」을, 그 다음은 이봉도 박사의「사이버 처방전 제도와 약료의 경향」, 권오윤 박사의「전환기 약국경영」강의를 들었다. 바야흐로 의약분업과 함께 인터넷이며 약국 홈페이지 시대에 사는 오늘의 약사들에게 참으로 유익하였고, 불확실성의 약사 직능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는 강의였다.

한인약사들은 고국의 의약분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대체조제와 의사권한의 강화 등은 처방 감시를 통한 상호견제에 어긋난 제도이므로 보완이 꼭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의약분업 제도에서 Home Healthcare 용품의 취급과

이로 인한 보험급여가산 등과 더불어 복약지도와 상담에 관한 설명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국의 우리 약사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타국 땅에 뿌리를 내리려 노력했던 도전정신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려는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오늘의 한인약사회의 귀중한 토대를 이루어 나가는 그들의 지식과 정신, 정보화에 대한 노력과 인내는 고국에서 참석한 약사들을 숙연케 만들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미국 방문, LA의 북미주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와 뉴욕 한인약사 심포지움 등의 참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돌아오는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뻣뻣한 그쪽 생활에서도 틈을 쪼개고 한가지라도 더 챙겨주려 애쓰시던 동문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알래스카의 새벽 공기는 정말로 상쾌했다.





#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 재미 4회 동의회 모임을 마치고

박 보 욱(4회, 미국 LA)

우리 시험실 한 조였던 셋(최윤종, 최영희, 최은실)이 졸업후 41년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남자동문 하나와 여자동문 둘, 머리가 희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약간 보일락 말락하는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이 세동문은 그저 자기들의 옛학창시절 시험실 대화만 정신없이 주고받고 웃고 또 웃는다. 그 이외에 열명의 동문들이 그때를 상기하면서 모두가 제각각 큰소리로 열을 올려 지절거린다. 모두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그때 시절로 돌아가버렸다. 어느 교수, 또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대며 우스웠던 얘기들을 토해내고 또 듣고 호떡집 불난 것 같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4회 동문중에는 1970년대로부터 미국이민 와 있는 동문이 꼭 22명이었는데, 약 3년 전에 노봉하동문의 타계와 배주형 동문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간지 벌써 12년이 되어 현재로는 20명이 미주지역에 이민온 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인줄 알고 감사하며 산다. 특히 남가주에만 14명이 살고 있고, 매 2개월마다 거리가 멀어도 찾아온다. 중심가에서 모일 때는 약 1시간

30분정도이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면 약 3시간 이상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한다. 그래도 꼭 참석한다.

모두가 모여서 옛학창시절 얘기를 나누며 웃고 즐거움으로서 동문들의 친교를 더욱 다지고 있다. 우리 동문들은 거의 20여 전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임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꿀 수 없고, 학창시절의 친구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간다. 서로 의지하며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자주 서로 전화하여 피로를 달랜다. 특히 요즘은 일선 사업에서 손을 떼는 상태 즉, 은퇴한 동문들의 하루 하루의 생활에서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자주 토해낸다. 우리 모두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함으로써 노인혜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땅에서 여생을 지내게 됨을 감사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더욱 우정을 나누며 모교에 애착을 갖고 후배나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 주어야 할 줄 안다.(사진 왼쪽 앞줄부터 박보욱, 박종렬, 이유근, 장익훈, 김희영, 김대영, 김선경, 이관용, 백승하, 김창윤, 최영희, 최은식, 최윤종 등)

# 동문회 활성화와 친목을 다진 세월



김기홍  
(1회, 고문)

우리 6,000여 동문들과 동문회보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니 뜨거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본인은 6, 7대에 걸쳐 5년을 약대 동문회장의 소임을 맡아 활동하는 동안 약대는 물론 전체 중앙대학교 동창회의 업무에도 깊숙이 관여한 관계로 여러 동문들, 특히 후배 동문들을 고생시킨 점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갚아야 할 묵은 빚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처럼 큰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우리 약대 동문회의 활성화와 친목이 공고히 다져진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뿌듯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1년이면 1-2회 빠짐없이 전국 각 지부 총회를 방문 격려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교육과 해외지부 격려를 목적으로 1개월에 걸친 미국 각지 방문 및 일본, 대만을 위시한 동남아 각국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거처가며 지금도 큰 기쁨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학장을 역임하셨던 김일혁 박사와 몇몇 교수들께 지금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단체를 맡아 친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쁜 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

다. 때로는 힘들고 더러 곤혹스러운 점도 많았는데, 이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우리 동문들의 넓은 성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 동문들이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일사불란하게 믿고 따라준 점이었습니다. 그 저력이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실적으로 동문회를 이끌어 가는 밑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은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 약대동문회 및 중앙대학교 전체 동창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3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적지 않은 일을 하는 동안 항상 우리 동문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일 선임으로 선배가 없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생긴 책임감으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항시 가슴과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들지만 기쁜 일, 이것이 우리 동문들을 위한 봉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회 졸업생들이 6.25의 참화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5회 졸업생이 탄생되고, 또한 2년이 지나면 약대 50주년이 되니 어느덧 일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동문들의 사회활동상황 평가에서 전 동문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국 24개 약대 중 1위로 평가한 것을 보고 대단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로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를 처음으로 맡았었다는 점은 특히 치하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출신 학교를 떠나 현직 약대 교수님들께서 더욱 연구에 정진하셔서 후학 지도에 열과 성을 쏟아주시기를 전체 동문들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회지의 지면을 통해 우리 6,000여 동문들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고맙기 그지없으며, 전 동문들에게 건강과 기쁨이 항시 같이하기를 바라는 선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 형 칠  
(12회, 수필가)

# 이 년 만 의 외 출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1년 만에 밟는 해풍이라 가슴이 후련했다. 배안에는 아내, 세정이와 진희, 손녀 유진이와 유진이 외할머니, 보트핸들은 차곤씨가 잠았다. 물살을 가르며 보트는 요란한 엔진소리와 함께 힘차게 내달렸다. 속도를 내는 만큼 더욱 상큼한 바람이 몸뚱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저 멀리 어선들이 보이고 물위에 동동 떠있는 섬들, 갯바위에는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드리우고 한가롭게 오가는 어선들이 평화로워 보였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자동차에서 콰이강의 다리가 보이는 순간까지 어서 저도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애써 보지않 움직이는 배안에서 그리 쉽지 않았다. 배 앞에 큰 파도가 밀려오면 배 속력을 줄이거나 잠깐 엔진을 껐다. 차곤씨는 능숙한 선장처럼 섬주위를 돌기 위해 북쪽으로 선체를 돌렸다. 선미에는 물살이 백미터 가량 하얀 선을 이루고 배 양쪽에도 거품이 풍선 모양을 만들었다.

배 앞을 향하여 앉은 유진이 외할머니랑 모두가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광경이 눈에 장혀 셔터를 눌렀다. 유진이가 바람에 숨을 몰아쉬며 눈을 지긋이 감는 순간에 셔터를 눌렀다. 유진이는 숄비스 차양모자를 벗기자 서럽게 울었다. 아내가 아이를 달려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처음 타보는 배, 아이 머릿속에 우리 가족이 함께 즐긴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약 15분 달렸을까. 섬 한바퀴를 돈 듯 붉은 색 콰이강의 다리가 보였다. 우리가 짐을 풀었던 바닷가 방갈로가 나타났다.

오늘 날씨는 그저그만으로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갭갭히 구름이 보일 뿐 바다를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검녹색 숲으로 가득찬 산과 섬을 잇는 붉은 콰이강의 다리(?)는 따란 하늘과 부기가 떠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동남아

어느 도시에 온 기분이었다.

진짜 콰이강의 다리는 검은 색으로 우리 콰이강의 다리보다 훨씬 견고하고 평지와 평지를 잇는다. 접령국 일본과 대전국 영국이 서로의 자존심을 대결하는 상징적 구축물로 다리는 결국 부서진다. 다리가 파괴되므로 제국주의도 함께 붕괴되는 것을 영화 속에서 암시해준다. 다리와 기차가 함께 무너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배우들의 명연기와 함께 휘파람 소리가 멋지게 울려 퍼지는 주제가 '콰이강의 행진'은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감동을 준다.

당시 일본제국주의 멸망했는데 오늘날 역사를 잘못 기술하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국사와 세계사를 어떻게 자기들 구미에 맞게 짜깁기를 하는가. 정직한 나라, 장수하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이러니컬하다. 콰이강의 다리와 함께 제국주의는 멸망했는데 다시 2차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을지 두렵다. 멀리 보이는 우리 콰이강의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2001년 7월 17일, 우리 여행은 갑자기 시작되었다.

오늘은 제헌절, 약국에 환자들이 별로 없었다. 동산의원은 문을 열었고 이무수의원 환자를 보지 않았다. 오전 12시까지 처방전은 겨우 30건 정도, 처방전이 적은 날은 무척 지루하다. 빨간 날은 환자들이 오지 않는다. 나는 아침 시간을 지루하게 보냈다. 지난해 유월부터 강행군으로 몸과 마음에 안식이 필요했으나 처방전에 마음을 쏟다보니 안심하고 자연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다. 갑자기 여행하기로 했다.

“여보, 우리 낱해, 그 섬으로 갈까?”

나는 차곤씨 누나집을 겨냥하며 제안했다. 아내의 즉각 다이얼을 돌렸다. 차곤씨 집은 부산이지만 워낙 낱시를 좋아하는 분이려 누나집에 갔다고 동희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아들 세정이와 연락하여 1시 30분에 봉창이 칼국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메라와 드링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몇 가지와 등을 준비했다. 저도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하다. 저도에 두어 번 가본적이 있다.

우리가 봉창이 칼국수 집 앞 도로에 가니 벌써 아들은 먼저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7월 중순 날씨는 굉장했다. 더운 바람과 함께 찜통 같은 더위였다. 아스팔트에서 뿜는 열기로 길에 발을 닿자 딸자 몸뚱이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켰다. 자동차는 어느덧 뺏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차가 먼저, 아들 차는 우리 뒤를 따라왔다. 뺏고속도로를 벗어나 마산 시내로 진입했다. 쉬는 날이라 시내에는 자동차들로 꽂 들어찼다. 산복도로를 벗어나 진동을 향해 달렸다.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난 수정이 보였다. 길을 몰라 차근씨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다. 가다가도 끝이 없는 도로와 나란히 벌은 천수당은 지난 가을도 잊은 채 벼들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다. 김해에서 출발하고 한 시간 반 가량 달렸다. 마침내 붉은 색으로 단장한 콰이강의 다리가 나타났다. 길거리 군데군데에는 행락객들이 몰고 온 자동차들이 줄을 이었다. 다리 앞에 도착했다.

다리 위로 자동차를 몰고 가니 기분이 이상했다. 폭이 워낙 좁은데다가 자동차 무게를 지탱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건너니 급경사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타났다. 전에 두어 번 와 보았지만 낯선 길 같았다. 수백 미터 앞 산기슭에 전에 와 보았던 풍경이 들어왔다. 주차장에는 손님들 자동차 너댓 대가 대어있었다. 차근씨 누나집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나 입구 왼쪽에 방갈로 석 채가 새로웠고 먼저 온 손님들은 방마다 차지하여 티셔를 즐기고 있었고 어떤 손님들은 무릎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꽃그림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어디로 가나 우리 놀이 문화는 문제 중 문제다. 산과 바다. 공항 대항실이나, 비행기 안, 심지어 외국 식당에서도 꽃그림놀이는 인정 사정없이 행한다고 하니 언제 놀이문화가 제자리를 찾을는지. 나도 외국여행을 네 번 했는지 도박장 외에서 장난 삼아 포크놀이하는 광경은 영화에서만 보았다.

바다는 생각하는 장소다. 두둥실 떠있는 어선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닷속에 재빨리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 어선들 위에 펼쳐지는 국기, 그림처럼 예쁜 콰이강의 다리,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자동차들, 따란 하늘 아래 넘실대는 파도와 바위에 부딪쳐 수많은 물거품들, 어디 하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광경은 없다.

우리는 힐끔거리며 눈길을 의식하며 방갈로에 자리잡고 짐을 풀었다.

“배 태워드릴까요.”

차근씨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딸자 우리는 20미터 원편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낯선 낯자 분이 배에 손질을 하고 있기에 차근씨 매형인줄 알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차근씨 누나집은 1킬로 가량 떨어진 콰이강의 다리에서 보이도록 횡집이라는 현수막을 달아놓았다. 해변 식당 옆에 방갈로 석 채, 가운데 본 건물, 그 앞에 열댓 명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을 바다를 향해 설치해놓았고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노래방시설을 갖추어놓은 임시건물. 오늘은 서너 팀밖에 없었다. 그리고 식당 뒤에 울창한 숲으로 가득한 높고 낮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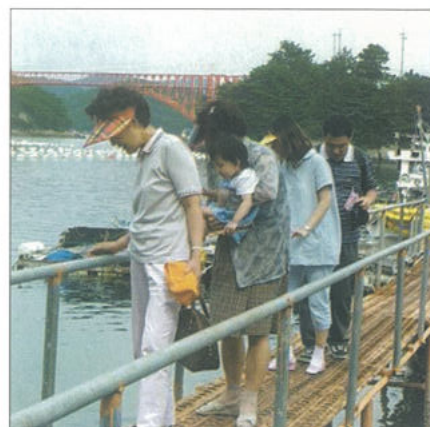
돌아올 즈음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 비스듬히 떨어지고 산그림자가 해변식당에 덮일 적에 멀리 콰이강의 다리를 바라보며 차근씨가 입을 열었다.

“여기 공기는 참 좋죠. 하지만 밤만 되면 적막 강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밤은 모기 등 해충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애로점이 많다고 했다. 밖에서 보는 이곳 생활은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밤엔 반짝이는 별무리와 직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유성, 갭갭이 들리는 뱃고등 소리 등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보낸 시간은 1년 365일과 비교하면 짧지만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며 호흡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김해를 향해 달렸다. 돌아가는 길은 물 때보다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와 손녀와 유진이 뒤편에 나와 함께 한 첫 번째 여행에 테이프를 끊었으니 두 번째 여행은 한결 쉽겠지?





# 제83주년 개교기념 행사 개최

공로상·교육상·학술상·중앙언론문화상 수상식도 함께...

중앙대 제83주년 개교기념식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11시에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명수 총장, 김희수 이사장 등 많은 내외귀빈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공로상, 교육상 및 학술상 수상 및 영년근속표창과 제13회 중앙언론문화상 수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영년근속표창은 30년 근속 9명 등 총 1백79명의 교수, 교직원, 부속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수여되었고, 학교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수여되는 공로상에는 김재범 교수(사범대 교육학과) 교육·봉사 등에서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교육상에는 김효정 교수(문과대 문헌정보학과)와 정영채 교수(산업대 동물자원학과), 연구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학술상에는 정정호 교수(문과대 경어영문학과), 안충영 교수(정경대 경제학과), 심

귀보 교수(공대 전기전자공학부), 손의동 교수(약대 약학부), 윤학원교수(음대 작곡과)가 수상하였다.

중앙언론상은 언론문화계의 발전에 공헌을 한 단체나 사람에게 수여된다. 방송부문은 기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KBS 보도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이루는데 공헌했다는 점을 인정 받은 최동호씨(세종대 교수가)가 선정되었다.

광고부분은 '대학생 광고대상'을 주최함으로써 후진양성에 힘쓴 이인호씨(LG에드 대표이사)가 선정되었고 출판부분은 전문도서를 꾸준히 출판하고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며 출판 유통 현대화 추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강희일씨(다산출판사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한편 신문부분은 지원자가 없어 수상내역에서 제외되었다.



## 중앙대문화예술인 연합회 결성

지난 8월 31일 모교 1캠퍼스 중앙문화예술관(아트센터)에서 '중앙대 문화예술인연합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문화예술인연합회는 창립취지문에서 "한국 문화예술계의 중추적 인물들을 배출해온 모교의 장구한 역사 속에 혈맥처럼 살아 숨쉬는 중앙인의 예술혼을 정립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창작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이 땅의 문화 예술을 꽃피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있다.

행사는 임시의장을 맡은 임현영(국문16, 본회 상임이사)교수의 진행으로 빠른 속도로 정관이 확정되었으며, 초대회장에는 박근형(연영 14)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취임사에서 "연어는 모천(母川)을 잊지 않는다. 연어 새끼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듯이, 모교가 문화예술의 토양이 되도록 우리 몸을 헐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명수 모교 총장은 "문화예술계 동문들의 모교 방문이 고맙고,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고, 말한 뒤 "21세기 지구촌 문화예술의 새지평을 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림체육관 개관

- 건물명칭 : 수림체육관(Surim Gymnasium)
- 연 면 적 : 7,922㎡(2,396평)
- 구 성 : 대체육관, 소체육관, 에어로빅·댄스스포츠실, 유도·레슬링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 이용시간 : 평일 09:00~20:00
- 일반개방 : 정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교직원 및 학생, 지역주민에게 개방
- 문 의 : 체육과학대학 학부 사무실 (031)670-4525



## 약대 손의동교수 학술상 수상

지난 10월 11일 모교 개교 83주년 기념식에서 약대 손의동교수(22회, 약물학교실)가 학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년부터 생긴 이 제도는 지난 1년간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데, 손교수는 SCI 국제논문 7편을 위시한 연구 및 저술 활동으로 의약계열(약학, 간호, 의학과)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 김명섭 동문, 민주당 사무총장에



본회 김명섭 이사(5회, 민주당 국회의원, 마약퇴치본부 이사장)가 지난 당직 개편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처음마음 그대로, 처음약속 그대로”의 구호를 앞세워 13대 때 첫 금배지를 단 후 15, 16대에 연이어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16대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등을 관장하는 정보통신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약업계의 부지런한 마당발로 알려진 김총장이 앉아서 할 일 서서하고 서서할 일 뛰면서 하지는 평소의 지론대로 난국에 처해 있는 정치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유정사 동문 대통령 표창 수상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사 동문(10회, 영등포구 유립약국)이 10월 5일 열린 제 5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1인 2역의 주역 평택시 황태선 분회장

일선지역 분회장으로 회무 수행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술·담배·카페인 진통제·진정제·대마초 등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약물 오남용 예방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평택시분회 황태선 분회장(9회)이 지난 평택 시민의 날에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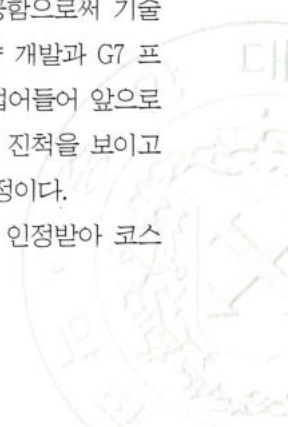
## (주) 바이넥스 8월초 본격 코스닥 시장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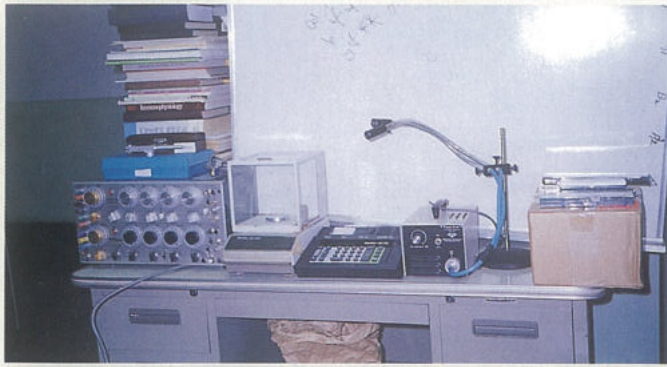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주)바이넥스 [대표이사 이백천(8회)]가 8월 7일부로 코스닥 시장을 통한 주식거래가 시작되었다.

(주)바이넥스는 코스닥 등록을 계기로 지금까지 구축된 自社의 이미지 재고를 통한 신수요 창출은 물론 의약분업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등 투자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7년 순천당제약으로 설립된 바이넥스는 지난 해 4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비스루트(Bisroot)균주 등과 효소제 판크레아틴 개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기술

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진진단시약 출시와 함께 모든 진단시약 개발과 G7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테크신을 포함한 의약품 조성물, 항암제 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 독자적 시장 형성 전망이 밝은 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G7 프로젝트는 세계 18개국에 특허가 출원됐으며 내년까지 관련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同社 관계자는 최근까지 생명공학 분야 등 12건의 특허가 신제품과 연계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 재미 이희민(7회) 동문, 모교에 기자재 기증

미국의약품관리청(US FDA)에 근무하는 이희민 동문(7회)은 지난 1999년 1차 기증에 이어 2001년 8월에 미국을 직접 방문한 김창종 교수를 통하여 ① physiograph accessory(electrical stimulator & pressure transducer 각 1점), Metro's chemical balance with Metler GA 23, 기타, 수술기구 및 pipett 등을 모교에 기증하였다.



### 9월 4일

### 감국회 모임

장소 : 세종호텔 12시  
안건 : 1) 약국 도움 이야기  
2)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에 많은 참여와 협조사항 논의

### 피부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신설

모교 의약식품대학원(원장 : 김창종, 11회)은 2000년 9월부터 향장품학 및 향장미용학 전공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2001년 9월부터 피부관리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피부관리실 경영자 및 피부관리사를 대상으로 국내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특수피부관리 및 향장품학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교육을 시작하였다.

### 9월 13일

### CP70(작은청룡회 모임)

회장 : 김수배(21회)  
70년대 학번으로 업계에서 중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문들이 작은 청룡회를 결성하여 친선 골프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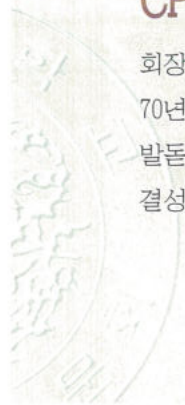
- 인사**
- 김명섭(5회) 의원 9월 1일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
  - 조의환(8회) 10월 4일 삼진제약 부회장 승진
  - 이성우(12회) 10월 4일 삼진제약 사장 승진

- 결혼**
- 노인배(3회) 이사 10월 1일 자녀 결혼
  - 이연수(4회) 이사 10월 21일 자녀 결혼
  - 김일권(12회) 이사 10월 13일 자녀결혼
  - 최종목(3회) 고문 10월 14일 자녀 결혼
  - 심재웅(12회) 이사 10월 21일 자녀 결혼

- 부음**
- 김명섭(5회)의원 9월 8일 모친상
  - 유영후(7회)회장 9월 17일 빙모상

- 행사**
- 9월 20일 서대문구 약사회(회장 : 정명진, 10회) 자선다과회
  - 9월 22일 흑중회 모임, 한미약품 지하 중식당 <행사예정> 11월 25일 중앙대 약대 ROTC 동문 창립총회, 프라자호텔 22층

동문 동정란은 6천여 동문에게 동문들의 소식을 알리기위한 장입니다. 직장이동이나 직위의 변동은 물론 주위 동문들의 경조사를 서신이나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10월 10일 현재)

## 회장단 회비

- ▷ 유영후(7회).....240,000
- ▷ 정재일(7회).....240,000
- ▷ 이기안(7회).....240,000
- ▷ 박숙자(7회).....240,000
- ▷ 임상묵(8회).....240,000
- ▷ 조의환(8회).....240,000
- ▷ 김연희(8회).....240,000
- ▷ 오희영(9회).....240,000
- ▷ 이규진(9회).....240,000
- ▷ 권혁구(9회).....240,000
- ▷ 박호일(10회).....240,000

## 이사회비(연12만원)

- 1회 : 손동헌
- 2회 : 고두흔, 지선훈, 정덕화,
- 3회 : 안재민, 배영식, 노인배, 박중순, 오세형,
- 4회 : 김기호
- 5회 : 김종무, 김영배, 김채운,
- 6회 : 유상열, 임완호, 안병한,
- 7회 : 유윤자, 한철희, 전승규, 최용선, 서명규
- 8회 : 강창호, 이백천, 김홍자, 허근희
- 9회 : 이근배, 황태선
- 10회 : 서정목, 김삼균,
- 11회 : 김미자, 민대식, 김창중, 허정범,
- 12회 : 이관하, 김구,
- 14회 : 김종렬, 김명웅,
- 15회 : 김용의, 조찬휘,
- 16회 : 권영복
- 17회 : 양희익, 전상훈, 양계순,
- 18회 : 조종형, 강응모, 김기명,
- 20회 : 이극선
- 22회 : 손의동, 고부환, 김종성,
- 24회 : 조종래, 이범도,
- 28회 : 김영숙, 양덕숙
- 감사님 : 김영일, 홍병석,

## 일반회비현황(연2만원)

- 1회 : 안영희, 최봉수, 허준필,
- 2회 : 박필일, 정인장, 김홍식, 김좌상, 김선동, 홍순각, 김길수
- 3회 : 이정주, 손설우, 박기하,
- 4회 : 신응섭, 정진원, 이경석, 홍범표, 박호원, 임호식, 이영아
- 5회 : 임맹순, 오운교, 이남수, 김원진, 손규산, 강희복, 이원모
- 6회 : 윤강노, 정정희, 권종악, 이성호, 정진석, 이만형, 이풍기, 유복상
- 7회 : 소근행, 안창일, 박용준, 이윤재, 이윤재, 인고길, 객상빈, 이홍수, 조경진, 김정웅, 이상현, 문장윤
- 8회 : 권태수, 김진우, 이풍진, 손영복, 정달수, 박종원, 김희선, 김 철, 정재용, 이태하, 박용문, 박희철, 임성빈, 유재우, 신형우, 이조열, 정영일, 이경질, 서진일, 김범수
- 9회 : 정석태, 박지상, 김영빈, 최영근, 이규형, 주신자, 한정희, 박장우, 권오성, 김학진, 정보영,
- 10회 : 오창학, 이중석, 심수일,
- 11회 : 이의공, 강일성, 박승보, 이석태, 김기승, 김승업, 김학진, 하만웅,
- 12회 : 김용환, 김정용, 이재덕, 김일영, 이만오, 이제원, 김정박, 이광호, 최덕구, 김두학,
- 13회 : 김인호, 최승기, 유용상, 손찬규, 김신미, 정명우, 박인재, 한상진, 신석준, 김세대, 김병현, 임재용, 이종건, 김길영, 이우식, 안상희, 윤해선
- 14회 : 이용성, 이병조, 전영표, 박찬임, 현해경, 박성호, 유효성, 박기진, 채성기, 정도연
- 15회 : 김경태, 정동욱, 강용순, 이덕로, 이재원, 박명배, 나인준, 최재길,
- 16회 : 최용남, 강명채, 박정우, 조춘식, 한인희, 박종애, 신규언, 이상현
- 17회 : 이동우, 좌윤순, 신승백, 김인형,
- 18회 : 권영철, 유덕희, 최정순, 남애숙, 안영희

- 19회 : 임광수, 정호성, 성귀현, 고재무,
  - 20회 : 이극선, 홍철수, 안연준, 박기배, 황양호, 강혜옥, 이종훈, 김영식, 임경원, 윤춘수, 방금숙, 송창수, 박지순
  - 21회 : 정옥희, 어경남, 우건상, 이상준,
  - 22회 : 유대식, 김태일, 오형영, 정상대, 한상훈, 김종궁, 강희윤, 고석순
  - 23회 : 공인호, 방용남, 김영출, 윤명숙, 객창림, 은성기, 서운출, 박상진, 김수중, 안봉국, 박희용, 조병학, 이원길
  - 24회 : 홍순철, 강창주, 홍용기, 김승재, 황규진, 임철빈, 권영직, 최금순, 배성식
  - 25회 : 김두수, 김희섭, 최두주, 김미희, 위성건, 김선열, 이승정, 신수경
  - 26회 : 정교현, 김광욱, 손영상, 김영후, 진희역, 부성심, 오옥희, 조필련, 신현동, 박정태, 하재일, 김형남
  - 27회 : 정웅섭, 송재욱, 최호진, 최중대, 오영돈, 최충식, 현기원
  - 28회 : 김미경, 김희식, 오용식
  - 29회 : 김은진, 이승재, 이종민, 유인석,
  - 30회 : 김혜옥, 조덕희, 김희진, 고영수, 김혜수, 서정봉, 김선경, 홍영미, 기명배, 조순연
  - 31회 : 한경수, 박건규, 최민숙, 오세정, 유영석, 유지영, 강미숙
  - 32회 : 안승희, 조양연, 이미정, 김재섭, 손수정
  - 33회 : 유정순, 최영아
  - 34회 : 홍순필, 정정아, 강선희
  - 36회 : 김락영, 임기민
  - 37회 : 한덕희
  - 38회 : 박정임
  - 40회 : 최용석
  - 41회 : 최진희
  - 42회 : 양원실
  - 43회 : 기명욱
  - 44회 : 정의찬
- 기수모름 : 정현우, 박장규, 조정행, 장동진, 김태준, 박수일, 한성순



# 장학금 수여식

## 미주동문 이사회비 및 일반회비

1,610불(2,093,000만원)

- ◎ 박보옥(4회)→200불(260,000만원)
- ◎ 우병해(6회) 이사회비→100불(130,000만원)
- ◎ 6회(김광열, 김명억, 김세봉, 김영수, 박노철, 이기정, 최수홍)→210불(273,000만원)
- ◎ LA지부 일반회비→600불(780,000만원) : 총 22명  
 송문영(1회), 이종문(1회), 송정용(3회), 조영만(3회), 백승해(4회), 최윤중(4회), 최수홍(6회), 이정재(7회), 박노익(7회), 성수자(7회), 최종범(7회), 윤영희(7회), 이복순(7회), 최운선(7회), 오정웅(8회), 신부남(11회), 김옥희(12회), 이옥순(12회), 우종수(12회), 김길옥(17회), 김승렬(18회), 김원규(19회)
- ◎ 뉴욕 일반회비→500불(650,000만원) : 총18명  
 김종태(5회), 이기황(7회), 이준종(7회), 김종락(7회), 장현재(7회), 최해룡(8회), 이기덕(8회), 서황석(9회), 박선호(10회), 김광수(11회), 서재범(11회), 이복선(12회), 배복선(12회), 이영순(14회), 김경숙(14회), 남궁예(14회), 박보영(17회), 서동철(23회)

## 2001년 신입회원 회비납부자(신입회비 2만원)

송혜림, 나영진, 정동만, 안영호, 김경아, 최 미, 이상행, 신경숙, 박혜정, 정혜영, 조영민, 조태원, 김문영, 홍정은, 김민선, 오지혜, 김수경, 권희승, 정영자, 민태홍, 이기진, 박지혜, 강성원, 김혜숙, 박희정, 정인철, 김호현, 김정현, 김태환, 김경희, 양정미, 박은미, 김지하, 김진희, 민지홍, 이동하, 정혜령, 이호순, 김보형, 김선희, 김정겸, 신연경, 유지혜, 박수현, 강신영, 권영민, 강규태, 서기현, 김정기, 이정욱, 임성혁, 문종권, 전상철, 박상민, 배기룡, 천경석, 이도성, 이영필, 박성준, 김혜진, 서무현, 조수현, 이선영, 박정환, 이미윤, 김유정, 전은희, 장경희, 김민경, 이가현, 박성희, 이희경, 이수영, 손지혜, 김재현, 이두원, 김희경, 윤한정, 윤선하, 서진호, 김현진, 박성진, 노수현, 신수현, 하지연, 심재현, 이규희, 김영미, 권정미, 임태규, 이정민, 이경숙, 김민희, 박승희, 박지연, 최장순, 이경미, 권성원, 박선미, 이도경

###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약동문회

###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 ▶ 일 시 : 2001년 9월 5일
- ▶ 장 소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세미나실
- ▶ 참석자 : 유영후 회장, 박명수 총장, 이도익 학장, 서국진 총무, 강옥희 여동문회장, 김기홍 고문, 최종목 고문, 엄계숙 여동문수석부회장 외 약대교수님



##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1	김 주 영	3.80/14
	700,000	1	정 성 희	3.77/15
	700,000	약학2	박 창 완	4.00/16
	700,000	2	유 미 정	4.00/14
	700,000	제약2	윤 현 정	4.00/15
	700,000	약학3	최 정 원	3.88/12
	700,000	3	조 민 희	3.86/14
	700,000	약학4	신 승 희	3.92/18
	700,000	제약4	이 영 주	4.02/12
	700,000	4	장 인 영	3.97/14
영등포동문회 (1,310,000)	655,000	제약2	이 윤 진	3.92/19
	655,000	약학4	김 미 연	3.75/29
부 산 동 문 회	500,000	제약3	엄 고 혜	3.77/16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1	류 해 숙	3.72/17
	500,000	제약3	전 승 미	3.67/22
한미약품(주) (2,620,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b>합 계 ; 12,230,000</b>				



세상 모든 일에는 행위에는 그 반응이 있기 마련이다.  
공심인데 콩나고 팔심인데 팔나며 미움을 심으면 시기로 돌아오고 사랑을 심으면 기쁨으로 돌아오는...  
동문회보를 만들면서 임원들이 동문을 사랑하는 시간과 마음을 심는다. 그 Response는 무엇으로 돌아올까?

황 공 용

(11회, 본보 편집인, 서초구 약사회장)

徐

축제는 축제였다. 막상 날은 잡아놓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시해본 경험도 없고, 요즘 같은 악국 분위기에 얼마나 참석할 지, 도시락이며 기념품은 어떻게 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날이 쌀쌀하지는 않을지 도무지 걱정 안 되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기쁨만으로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다.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지만, 모두 흔쾌히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런 폭발적인 호응을 동문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지가 회장단의 몫이리라.

明

그날 광천 I.C에서 길을 따라 가니 남당리 포구가 나타났다. 그곳에선 대하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툭툭튀는 새우가 달군 소금더미위에서 몸부림치다 이내 먹음직스런 모습으로 변했다. 식성이 까다로운 아내가 오랜만에 지겨울 정도로 먹어 치웠다. 어느덧 결혼 24주년 어둠이 짙게 깔린 서해안의 포구에선 비린내와 옛장수의 흥겨운 노랫가락 드문드문 술에 취했는지 사랑에 취했는지 여와 남이 어울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또 한차례의 추억을 남기며...  
-동문회 체육대회가 온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대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유영후 회장님 그리고 대회 진행에 힘쓴 모든 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부턴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고 오직 승리만이 우리의 목표다.

庸

테러 비행기가 달려들기 한달 전 바로 그 뉴욕의 중심부를 우리 일행이 활보하고 있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지속되던 무더위가 그날 내린 굵은 빗방울로 긴 여행에 지친 마음을 달래며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주변 곳곳까지 진출해 있는 셀 수도 없는 한글 간판을 보며, 그 이면에 깔린 이민생활의 고단함을 조금씩 느끼던 시간. 고생고생 끝에 지금과 같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선배들, 뽀뽀한 미국 생활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고 모국에 대한 향수와 후배 사랑으로 듬뿍 양념을 친 선배들의 배려와 마음씀을 잊을 수 없다. 준종이 성님, 언제 또 소주잔 앞에 놓고 걸쭉한 육두문자로 후배들 훈계할까?

洙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한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고 지도자 주변의 몇몇이만 호위호식하는 행태(?), 이는 비단 그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심하나 덜 심하나일 것이다. 남을 이끄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옷길을 추스리고 각성해야 할 때이다.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구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최고의 약국체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온누리약국체인 회원대모집

## 온누리건강 정회원 모집

### 온누리 포털사이트 운영

- Web상에서 온누리체인약국 재고관리, 판매관리, 품목관리, 사입관리 등을 통한 약국경영지원
- 사이버연수원의 최신 의약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전자상거래

### 차별화 된 의약품 공급

- 차별화 된 브랜드 의약품
- 전문의약품/도매물류
- 다양한 건강관련식품
- 화장품/건강용품
- C.I 된 약국소모품

### 약국컴퓨터시스템 무상지원

- Onpharm on the net 무상 지원
- 온누리건강 본사 C/S팀이 약국컴퓨터 A/S 무한 책임 지원
- Onpharm Call Center 운영
- Homepage/E-mail 무료 제공

### 링크아렉스(국민은행) 등과 금융업무 전략적 제휴

- 온누리약국체인 회원이 되시면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기)를 약국에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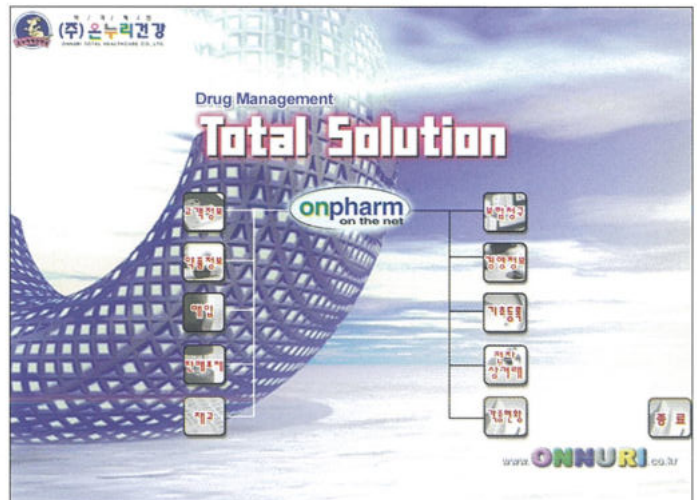
## 온누리건강 준회원 모집

- ◆ 가입자격: 약국체인 (주)온누리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약사 누구나 가능
- ◆ 가입비: 없음
- ◆ 온누리건강 준회원 가입 시 드리는 혜택
  - Onpharm on the net 무료 제공
  - Onpharm on the net 사용약국 본사에서 컴퓨터 A/S 직접 지원
  - 온누리 도매물류 이용혜택 부여(도매의약품, 전문의약품)
  - 온누리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제품 및 최신의약품정보, 차별화 된 약국 경영 정보, 인테리어 정보, 약사법, 세무회계 등의 정보 실시간 제공

● 온누리포털사이트 <http://www.onnuri.co.kr>



## ● 약국경영관리 통합솔루션 "Onpharm on the net"



◆ 회원가입문의: 080-555-2580, 02-569-5662(ARS 1) 회원지원사업부 ◆  
<http://www.onnuri.co.kr>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mailto:capa21@hananet.net)